

# 가정 예배 모범

- 2021\_11\_21\_장기중앙교회

##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 가족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욕심과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사기 9장 22~ 45절

###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3년이 지나며 서서히 몰락합니다. 아비멜렉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22-25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여룹바알은 아들 7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살인으로 얻은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다스린지 3년 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잔인한 폭력과 죄의 값을 되돌려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헤치려 합니다. 한때는 마음이 맞아 함께 악한 일을 도모했던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헤치려 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 이젠 서로를 겨눕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폭력과 욕망으로 삶을 사는 이들의 최후는 스스로 심판 가운데 서게 합니다.

2) 에벳의 아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가알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26-45절)

어느 날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왔습니다. 때마침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신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가알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미움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을 충동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세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그를 몰아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비멜렉은 매복하고, 다음날 가알과 싸웁니다. 그 일로 아비멜렉은 가알 무리를 내쫓고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가알의 음모는 단 하루도 못가서 들통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한 꾀는 조금이라도 따르지 말고 멀리 합시다.

###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